**그리스도왕 대축일(2018년 11월 25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중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정해서 경축하고 있죠. 다음 주면, 2019년도 대림 제1주일 전례가 시작됩니다. 뭐 세월이 그냥 정신없이 막 흘러 지나갑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강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랑’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가는 이 시대에 마더 데레사 성녀는 말합니다.

“그대들이 포근한 잠자리에 들어갈 때, 잠시 이 세상의 춥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충분히 사랑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세상 절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음식 전부를 독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굶주려서 힘없이 죽기 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 충분하게 사랑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고 ‘나눔’이랍니다.”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고 성취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주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큰 집에서 살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잘 나야 하고, 또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나누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과 희생보다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잘난 것 같고 특별한 것 같은 우리 인생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거대한 자연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하느님 섭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척해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안됩니다.

나 혼자만, 아니면 내 가족끼리만 행복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본들 행복이 그렇게 쉽게 오지도 않습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과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막연하게 행복만 좇다가 인생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평생 갈구하던 행복도, 그토록 소중한 것 같았던 내 인생도, 세상의 영원할 것 같았던 국가와 정치권력도 결국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대하게 번성했고,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과 큰 왕국들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가면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 집니다.

이번에 성지 순례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인간의 위대함도 보았지만, 신이 되어 보려는 인간의 욕심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룩한 놀라운 인류 문명도 역사의 뒤편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요르단의 페트라에서 사막 속에 건설된 고대 왕국의 놀라운 문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역사의 뒤편에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오랜 세월, 인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고 전해지고 있는것 , 바로 하느님 나라뿐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믿고 살아가야 이 짧은 인생이 허무해 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자기 몸 하나 살려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냐고 욕하고 빈정거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고, 구세주였습니다.

스스로 옳다는 자만심과 편견, 고집, 이기심들이 우리를 행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나누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니까 세상이 살기가 점점 힘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세상 주인이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살아가면, 마음 속에 참된 평화와 행복이 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느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법칙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느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